

윤석열 대통령, 해경의 날 기념식 참석... "해양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8일 오후 인천 아라사해감문에서 개최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한 대통령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아라뱃길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동해 '1513함장 이기봉 경정', 남해 3006함장 박승연 경정, 서해 1506함장 백종수 경정'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함장들에게 기상상황은 어떤지, 함선 근무자는 몇 명인지 등을 물으며 근무상황을 살핀 후, "경계수호와 해상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다"며,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늘 유익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떠나기 전 근무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다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해상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사회 인프라가 여러분들을 믿고 잘 돌아간다"고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서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해양경찰관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순직, 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故 이원석 경장,故 조동수 경감,故 오진석 경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은 "바다에서의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으며, 해양사고는 조금만 대처가 늦어도 큰 위험이 된다"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해양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 기술 기반 해양정보 융합플랫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국민

편의 증진 및 안전질서에 기여한 김원태 경정에게 근정포장을,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 김인구 사무관과 해양범죄질서 확립에 기여한 안진섭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을,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해양경계 임무 수행 중 순직한故 조동수 경감의 유가족을 비롯해 해양경찰 순직자 유가족 7명과 거친 바다 위 함정에서 태어나 현재는 고등학생이 된 '남해우리' 군, 어린 시절 해양경찰에 구조된 이후 자신이 해양경찰이 되어 이제는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양승호 경감 등이 자리를 빛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칠레·페루·콜롬비아·브라질·프랑스·베트남·미얀마 등 주한 외국 공관 대표와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22명의 외국 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월20만원씩 12개월지원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9월 5일부터 신청

서울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제공하기 위해 추가모집하기로 결정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 10시~9월 18일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8월 21일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 없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별,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농촌형 스마트 복지·안전마을 공동체 구축

영암·강진, 복지취약 가구에 IoT돌봄플러그·AI 전화서비스 실시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공모사업'에 영암군과 강진군이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확보, 농촌형 스마트 복지·안전마을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주민 생활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복지·안전의 최일선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국비 매칭 지원을 통해 총 사업비 8천800만 원을 투입해 서호면

에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 사물인터넷(IoT) 돌봄 플러그 설치, 마을 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해 스마트 행정안전복지센터를 만든다. IoT 돌봄 플러그는 평상시 전력 사용량 데이터 등을 분석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람을 발송해주는 시스템이다.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 200가구에 지원해 고독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총 사업비 5천200만 원을 투입, 군동면에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 인공지능 안부 전화 등 비대면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안심 돌봄단도 운영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2개 시군과 함께 사업 신청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협의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복지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영양군 YEONGWANG-GUN www.yyg.go.kr

영양 들머리-보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머리보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문, 빛, 맛, 심, 숲

강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마을,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촉백수림, 외배서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재민호보료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암동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유원지, 영암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목아생화전시관

ida, KOREA TOUR, citiworld, 한국관광공사

경북도의회, 영양군, 내수면 토속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방류 행사 실시

박홍열 경북도의원 주관, 영양읍 반변천 일대 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 개최

영양군은 8월 23일 박홍열 경상북도 의회 의원의 주관으로 영양읍 상원리 반변천 일대에서 개최한 '토속어 치어방류'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영양지역내 토속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내 유일한 도의원인 박홍열 의원의 주관으로 경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생산한 치어를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박준로 영양 부군수를 비롯한 지역 읍장, 민간단체 등 약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영양군은 지역 한가운데에 반변천이 흐르고 있으며 가을 등에 대비해 축조된 저수지마다 맑은 물이 가득하여 이와 관련 내수면 수자원이 매우 풍부한 천혜의 지역이다. 이에 영양군은 수자원 조성 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토속어류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건강한 잉어, 붕어, 미꾸리 등 치어 약 6만 마리를 방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영양 용주사 대명스님과 신도 등이 참여하여 물고기 방생 관련 문화행사를 진행했는데,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성찰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참석자들이 소감을 전했다.

박홍열 도의원은 "우리 영양의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치어 지속방류, 교란어종 퇴치, 불법 어업행위 단속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토종 어자원 확충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청정 영양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영양출신인 박홍열 경북도의원은 경북도 예산총괄팀장, 문화예술과장, 청송 부군수 등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행정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윤근수/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의회 시계탑 복원기념 제막식 개최

김 의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상징이자 본산인 서울시의회 본관 제 모습, 제 가치 찾아"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시계탑 복원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표채 (사)한국의재발전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1935년 건립된 서울특별시의회 시계탑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결정적 순간, 결정적 장면마다 대사의 결정적 순간, 결정적 장면마다 빠지지 않는 건축물"이라며, "소실 이후 50여 년 만에 시계탑을 복원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본산인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비로소 제 모습과 제 가치를 되찾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의회 제 모습

찾기 작업은 단순히 시계탑이라는 역사 유적을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대형 휘장과 사인물 등 권위적 유물은 거둬내 문턱 없는 근대화재 명소로 탈바꿈했다"라며,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빅벤, 독일 뮌헨의 시청사 시계탑과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시계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 시계탑 복원이 민간 협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성공사례로 기록돼 더 큰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존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시계탑 복원을 통해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을 위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복원된 시계탑은 의회 본관 등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가 설치됐다.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제막식에 앞서 기부증서 수여식도 개최됐다. 김현기 의장은 시계 3점을 기탁한 정표채 (사)한국의재발전 대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품 기부증서를 수여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부산시민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앞장

청소년만의 문제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민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은 오늘(2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회원인 송우현 시의원(동래구2)은 지난 7월 28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사회 속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이 OECD 평균인 47%보다 낮은 25.6%로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의원들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통합적 문해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원연구단체 정책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는 송 의원이 제시하는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정책 현황과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 검토를 시작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진행됐다.

토론 패넬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양홍석

센터장, ▲전국 광역시·도 거점 스마트실센터 기반 대국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능정보사회진흥원 부산스마트실센터 김남순 센터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백진영 센터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을 하고 있는 부산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유경 팀장이 참석하여 디지털 심화의 가속화에 따른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와 이슈들을 늘어놓으며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홍유경 팀장은 "10대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어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특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10대 청소년들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친숙한 세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고,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거부하거나 부모와 같은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순 센터장은 예방과 해소의 교육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교육과 상담으로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

이기에 올바른 디지털 사용을 위한 전 세대에 걸친 정책과 고민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처음엔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 목적이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보니,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면해있는 문제이고,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고민해 앞으로

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 이기에 올바른 디지털 사용을 위한 전 세대에 걸친 정책과 고민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송 의원은 "처음엔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 목적이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보니,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면해있는 문제이고,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고민해 앞으로

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 이기에 올바른 디지털 사용을 위한 전 세대에 걸친 정책과 고민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송 의원은 "처음엔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 목적이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보니,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면해있는 문제이고,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고민해 앞으로

이제 송 의원은 "처음엔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 목적이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보니,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면해있는 문제이고,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고민해 앞으로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 제도 확대 필요"

연구모임 2차 회의 및 저소득층 문화복지관광 제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은 28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 경험과 교육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응답자의 관광 욕구와 경험, 충남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충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복지관광 실태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단은 조사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일상

에서 관광(여행)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관광 지원 강화 및 문화누리카드 사용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현장 대상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정책의 토대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문화복지 지원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충남의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 정책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며 9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육정미 대구시의원,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촉구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 촉구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자료가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육정미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부산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개인에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도민참여제도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체계적 참여제도 연구로 도민참여 활성화 및 민주성 제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민참여제도 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2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속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민참여제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속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연구진 및 토론회자 3명 외에 일반시민 20명이 참석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연구위원인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민관협력위원회, 경기북지거버넌스 등 경기도의 주요 속의형 도민참여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는 연구"라고 소개한 뒤 "특히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현재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마련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 참여과정에서 속의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습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은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명숙 더 좋은공동체 대표는 "속의기간 확대와 위원들의 역할 제도화"를 주문했다. 다음 토론자인 민진영 경기 민연련 공동대표는 "단년도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집행률 제고"를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등장한 최준규 경기연구원 지치행정연구실장은 "속의형 참여제도 성숙에 따라 기존 공무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밖에도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공동소장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이 시민토론회로 참석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연구회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중간보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속의형 참여제도 활성화를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힌 후,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속의형 참여제도는 꼭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연구진의 세심한 연구와 토론진의 활발한 토론 못지않게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열망을 접하며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며 감회를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에 착수하여 7월 11일에 착수보고회와 8월 28일 중간보고회를 마친 '경기도 속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는 9월 22일에도 완료 및 최종보고회를 남겨두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초대 수원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결하여,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2일 '수원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은 해당 시·군의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협력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사업 추진계획, 운영, 사업자 등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호동 의원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첨단과학과 교육이 함께 하는 수원시의 모든 자원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교육자원이 되도록 늘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의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달 제정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지역교육

협력 사업은 경기 이룸학교 사업, 경기 이룸대학 사업을 비롯, 지역교육협력을 위해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수원지역 특색에 맞는 독창적인 지역교육협력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2024년 경기 동북부 의료 확대가 경기도 의료복지의 시작

"2024년 경기도 동북부 의료 확대가 경기도의 의료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승훈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병원장, 황영성 을지대

학교 지역협력실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공의 정원정책 관련 건의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 경기도 동북부 의료환경 개선 ▲ 의정부를지대학교병원 설립 당시 지역상황 및 설립취지 관련 설명 ▲ 현재 경기 북부지역 의료체계 역할 및 기능 ▲ 의

정부를지대학교병원의 운영상황 ▲ 경기북부지역 전공의 정원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 의료 지원대책 추진과제 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관련 지방의대 지역인재모집 확대와 전공의 배치연계 방침을 발표했다. 의정부를지대학교병원 측에서는 "최근 지역 특성상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인력 확대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기동북부는 지난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으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속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른 취약인구지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균 대비 높으며, 이중 특히 경기동북부는 북부지역의 다른 자치단체보다 취약인구비율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의료

육, 연구 및 진료확대를 통한 북부 의료 발전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인력의 교육과 훈련, 연구 수행 등 수준 높은 진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동북부 의료 확대가 경기도의 의료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 의료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부 암센터 설치, 광역 심뇌혈관센터 등에 대한 설치를 고려함으로써 의료공백 및 의료격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경기 북부 인구 특성상 응급, 심뇌혈관, 외상 등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시 감염병 전문 진료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위한 무료 인형극 84회 실시

28일 성남시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교육(인형극) 84회 진행

경기도는 연말까지 도내 21개 시군과 각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공연장에서 총 84회에 걸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을 위한 무료 인형극을 실시한다.

이번 인형극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안전한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돕고자 마련됐다.

인형극 '별주부 자라의 음식여행'은 3~7세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 건강 음식 찾기(불량음식 구별하기) ▲먹을 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먹기 ▲올바른 손 씻기 등의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28일 성남시청 운누리홀을 시작으로 12월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까지 이어진다.

'별주부 자라의 음식여행'은 바닷속 용왕님이 병이 나자, 자라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육지에 있는 토산물을 찾아간다는 고전 '별주부전'을 토대로 만들었다.

인형극은 자라가 토산물을 찾아 숲속으로 가서 용왕님과 똑같은 증상으로 아파하는 숲속 친구들을 보게 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구성돼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나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점검 항목을 통해 손 씻기와 건강 음식 찾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색깔음식 구분하기 등의 활동지를 나눠주며 교육을 통해 달라진 모습까지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순회공연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10개 시군은 비대면 교육을 하며, 비대면 교육자료를 신청하면 각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해 배포한다.

공연 일정, 장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90) 또는 해당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동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안전한 식품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 전통주 산업 활성화 목표로 기틀 마련한 '경기술페스타' 성황리에 마무리

광미숙 의원 "경기술페스타 전통주계 핵심 행사 되도록 정책적 관심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미숙(고양6) 의원은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한 '경기술페스타' 행사가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최로 열린 '경기술페스타'는 경기도 전통주의 가치와 맛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통주 박람회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을 지낸 광 의원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도의회 국민의힘 핵심 정책으로 설정, 11대 의회 출범 후 1년여간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 및 도내 전통주 제조장 정책 투어 등을 진행했으며, '경기술페스타' 추진에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도 내 51개 전통주 업체가 참여한 첫 경기술페스타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전통주 소믈리에의 현장 전통주 경매 쇼, 전통주 하이볼 시연, 막걸리 빚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더해져 현장의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또한 부문별 우수 술을 시상하는 '경기주류대상' 시상식, 소비자 인기투표를 통한 인기 술 선정 등의 행사도 더해져 도내 전통주의 맛과 멋을 알리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도의회 광미숙 의원은 "11대 의회 임성 후 계속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쌀 소비 확대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올해 처음 열린 '경기술페스타'가 전통주계 핵심 행사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2023년 상반기 수원시 최고의 미담을 소개합니다!

장애아 따뜻하게 품은 어린이집·제자의 경제적 어려움 보듬은 스승

수원시 홈페이지에는 '칭찬합니다' 게시판이 있다. 수원시민의 칭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게시판에는 올해 1~6월에만 232건의 다양한 칭찬 글이 게시돼 칭찬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수원시는 이 중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자 '최고의 미담'을 뽑았다. 상반기 시민 칭찬글 가운데 조회수와 공감수가 높았던 3건을 대상으로 2주간 시민투표를 진행, '새빛 특목'을 통해 총 43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해당 투표 결과, 장애아동을 키우기 위해 마음을 모은 어린이집(232표)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도왔던 스승의 이야기(148표)가 최고의 미담으로 선정됐다. 학생과 부모, 교사가 서로 신뢰하고 어우러지며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시민의 마음에 닿은 셈이다. 수원시민이 칭찬하고, 수원시민이 뽑은 상반기 최고의 미담 두 가지를 소개한다.

◇장애아 보육을 위해 온 힘을 모은 사람들

"장애아와 가족들에게 차별 없이 따뜻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 수원시 최고의 미담으로 선정된 사례의 주인공은 시립광교2동어린이집을 이끄는 이종금 원장 선생님(56)과 교사들이다. 이들을 칭찬한 사람은 올해 초 해당 어린이집을 졸업한 장애 어린이의 조부모 김수련씨(61). 그는 시립광교2동어린이집과의 만남이 '천운이었다'고 기억한다.

지난해 3월, 뇌전증과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손주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다 못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던 김수련씨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개학을 앞두고 새 가방까지 받아 돌아왔지만 담당 선생님의 근심 어린 표정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동네를 산책하던 그의 눈에 인근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어린이와 교사가 들어왔다. 다짜고짜 선생님 손을 붙들고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던 시립광교2동 어린이집은 마침 입소가 결정됐던 한 장애아가 갑자기 상원하지 않기로 해 한자리가 남는 상황이었다. 즉시 상담 후 바로 입소 대기와 입소 확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렇게 어린이집과의 운영 같은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아이는 안정감을 얻었다. 외부에서는 음식을 잘 먹지 않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먹기 시작했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얼굴 표정이 편안해졌다. 잠도 잘 자고, 발작 증상도 거의 없어졌

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늦게 데리러 오면 많이 울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하게 되자 일을 하는 시간도 늘릴 수 있었다.

시립광교2동어린이집은 장애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원장과 교사들이 합심해 도자기 만들기 등 일반 어린이들과 장애아가 모두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체험으로 제공하고, 아이의 상태 관찰 등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장애아를 키우며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가족은 웃음을 찾았다.

1년의 시간이 지나 졸업이 다가오자 김수련씨는 조금 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지를 어린이집과 의논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종금 원장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가족의 미래를 고민했다. 결국 제때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권유해 고민 끝에 세상 속으로 한걸음을 더 내딛게 됐다.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던 김수련씨는 수원시의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생각했다. 그는 "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 모두 장애아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교육 방향을 고민해 주셨다"며 "최대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장애아들도 똑같은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칭찬을 받은 이종금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공보육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큰 칭찬을 통해 상까지 받게 되니 보람이 크다"며 "뽀뽀한 마음을 자양분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도 보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원도 고민하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스승과 제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값여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미담의 주인공은 오래전 따뜻한 가르침을 전한 스승 이양호씨(77)와 이를 잊지 않고 실천한 제자 김도영씨(62)다. 이들의 만남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수원의 한 사립 여자 중학교에 이양호 선생님이 담임은 맡은 2학년1반에서다.

당시는 분기별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쑤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김도영씨는 새벽엔 우유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석간신문 배달을 해도 등록금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1학년 내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2학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늘 자퇴서를 풀고 다녔고,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거짓말을 계속하지 못한 어느 날, 결국 교무실로 불려 갔다.

교무실에서 꾸뻑거리며 자퇴서를 내밀자 담임인 이양호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찢어버렸다.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은 채 꿀밤을 때린 선생님은 "너만 어려운 줄 알아? 세상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더 나우랐다. 이어 "나한테 빚졌다가 생각 말아. 나중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서 살아."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후로는 김도영씨가 수업료를 못 낸다는 이유로 혼이 난 적이 없었다. 선생님이 친구들을 앞세워 가정방문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고는 심부름 값이라며 빵을 주기도 했다. 불쌍한 학생들이 괴롭힐 때에도 선생님의 호의를 생각하며 버텼다. 그렇게 무사히 학교생활을 마쳤다.

이양호 선생님은 "그 때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돈 얘기 하기가 가장 어렵고 싫어한 제자 사랑으로 제가 바르게 살아올 수 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무살이 넘어 직장생활을 시작하자 드디어 선생님의 가르침이 마음에서 꽃을 피웠다. 중학교 때만 해도 자신보다 힘든 사람이 없어 보였지만, '나에게 값

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는 가르침이 강한 중심점이 됐다. 김도영씨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며 마음의 빛을 깊고자 노력했다.

더 성공해서 선생님을 찾아뵙겠다는 생각으로 지내던 김도영씨는 지난해에야 사소한 끝에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하다는 제자에게 스승은 찾아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수십년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는 추억을 공유하고 감사함을 나눴다. 교장까지 지내고 퇴직한 이양호 선생님은 자신이 담임 맡았던 학생들을 기록해 둔 수첩에서 김도영씨를 찾아 보여줬고, 학교 연혁이 담긴 책자를 펼쳐 함께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이후 김도영씨는 이양호 선생님이 자주 시간을 보내는 동네 경로당에 간식거리를 사 들고 한달에 한번씩 안부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양호 선생님은 "다른 교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현해주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럽다"며 "그런 마음을 먹고 잘 성장해 줘서 멋있다"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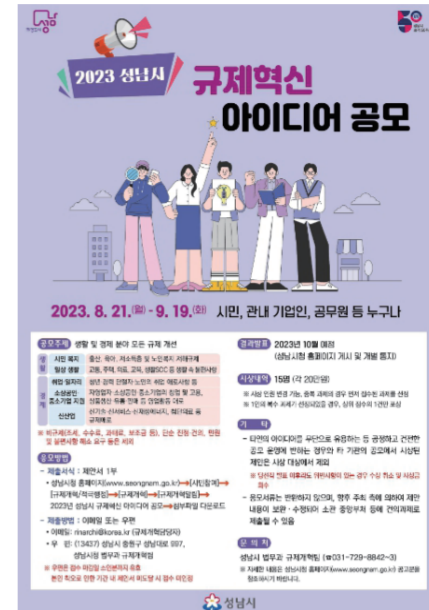
김도영씨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뭐가 됐을지 모르겠다"며 "선생님의 진정한 제자 사랑으로 제가 바르게 살아올 수 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상반기 최고의 미담으로 꼽힌 두 사례의 대상자들에게 우수시민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내달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일상·경제생활, 적극 행정 추진 걸림돌 발굴·개선"



성남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이번 공모는 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오는 10월 15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한다.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50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1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시기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인 2월로 변경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아이디어(제안자 성남시 공무원)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김범상/기자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7) 25일 개막...70일간 상상공간 열린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설치작품 '팔렛세움'에서 개막식 개최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8월 25일 '7구역-당신의 상상공간(ZONE 7 - Your Imaginary Space)'을 주제로 70일간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APAP7 개막식이 지난 25일 19시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야외에 설치된 작품 '팔렛세움'에서 개최됐다고 26일 밝혔다. 팔렛세움은 '무대와 혼성된 공공예술'을 선보인 국형걸의 작품이다.

이날 개막식은 민속 전통 음악을 곁들여, 현대적인 음악을 만드는 네덜란드 보이 아키(BOI AKIH)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보이 아키는 APAP7의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 공간을 노래로 담았다.

이어, 박경진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개막선언, 인사말, 축사, 홍보대사 위촉, 김성호 예술감독의 APAP7 및 참여작가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강득구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시민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APAP7에서는 기존 안양예술공원에 더해 유희공간이었던 (구)농림축

산검역본부를 아름다운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삶 속에 자기만의 상상공간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24개국 48팀 88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APAP7은 오는 11월 2일까지 만안구 안양예술공원과 (구)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내·외의 전시 및 행사로 진행된다.

모든 전시는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월요일과 추석 당일에는 휴관이다.

또 사전 예약(네이버에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검색 후 예매)을 통해 공공예술과 설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투어도 운영된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5회(10:30, 11:30, 13:30, 14:30, 15:30) 진행된다.

그 외에도 나이트투어, 영어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APAP7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APAP7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이 28일 감사원 개원 75주년 행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감사원은 올해 문제해결, 제도정비 및 행정능률 향상, 감사제도 발전 등 4개 분야에서 27건(부서·기관 12건, 개인 15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상했다.

시는 함백산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행정을 도입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화장장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를 비롯한 6개 시의 공동형 장사시설로 2021년 개원해 운영되고 있다.

양시현/기자

고양시, 행주산성으로 무장애 여행 떠나볼까...행주관광차 운영

9월 1일부터 대첩문~충의정 구간 운영, 장애인 화장실 확충

고양특례시가 9월 1일(금)부터 행주산성에서 행주관광차 운영을 시작한다. 관광차는 대첩문에서 충의정 정상까지 이르는 약 800m 구간에서 운행된다.

행주관광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열린 관광지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관광차는 6인승과 9인승 총 2대다. 친환경 전기차인 행주관광차에는 휠체어 탑승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행주산

성은 전승지로서의 위상과 아름다운 한강 풍경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이지만, 17도가 넘는 급경사 구간이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모든 시민이 행주산성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행주관광차는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동반객 포함) 우선 탑승 차량으로, 65세 이상, 장애인,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다. 일반 이용료는 왕복 2,000원, 편도 1,000원이다.

행주관광차는 행주산성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금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행하며, 공휴일과 주말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행하지 않는다. 우천, 태풍 등 기상 악화 또는 관람객 혼잡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행주산성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공간

을 개선하는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기술과예술기반의시민문화예술소통공간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 개관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8월 27일 기술과 예술 기반의 시민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 : 공생광장'을 개관해 약 3,000여 명의 시민을 맞이했다.

'용인문화도시플랫폼'은 대도시 용인의 다양한 세대가 기술과 예술을 기반으로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마련된 옹기다리(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핵심 자족 시설)로 경기도에서 어린이 인구가 가장 많은 용인의 대표 어린이 문화공간인 '용인어린이상상숲' 지하 1층에 2,000평 규모로 조성돼 의미가 깊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력으로 탄생된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모두창작실' ▲시민 공동창작물을 포함해 모든 작품을 AI 등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시하는 '갤러리' ▲도시의 '공생문화'를 연구하고 아카이브 하는 '공생연구실' ▲손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열린작업실'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했으며,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주제의 '용인문화도시플랫폼 아카데미'가

열리는 '워크숍' ▲청소년들이 대중예술 아티스트의 꿈을 키워나가는 '대중예술스튜디오' ▲웹툰 창작의 꿈을 펼치는 '웹툰 창작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용인문화도시플랫폼'을 선보였다.

특히 개관일에 맞춰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는 '대중예술아카데미' 발대식과 함께 화려한 댄스 공연도 펼쳤으며, 용인문화도시 사업에서 양성된 관내 지역 활동가들과 시민 기획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곳곳에서 선보였다.

오는 9월부터 선보이는 '용인문화도시플랫폼 아카데미'에서는 용인시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재 용인문화재단 용인문화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새롭게 개관한 '용인문화도시플랫폼' 운영으로 다양한 도시의 주체가 예술교육부터 교류, 창작활동까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부모, 어르신, 청년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

으로 세대를 넘어 차별과 소외, 편견이 없는 공생하는 도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시흥시 마을교사 100여 명, 하반기 연수로 본격 역량 강화

"일상·경제생활, 적극 행정 추진 걸림돌 발굴·개선"

시흥시가 'K-교육도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마을교사 필수 연수인 'K-교육도시 시흥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26일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는 100여 명의 마을교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연수는 모두 네 개의 강의로 진행됐다. 먼저, 김송진 시흥시 교육자치과장이 'K-교육도시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어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교육도시를 향한 시흥시의 노력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경민 장곡고등학교 진로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요점을 설명했고, 임현철 윗터골초등학교 교사는 '성공적인 마을수업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며 연수가 마무리됐다.

현재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마을교사는 400여 명으로, 시흥시는 마을교사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마을교사의 수업력이 곧 시흥교육의 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마을교사 대상의 연수는 이날 열린 'K-교육도시 시흥브리핑'을 비롯해 안전교육, 성인지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의 필수교육과 분야별 전문성을 기르는 선택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오전·오후로 두 차례 걸쳐 진행된 연수에 참석한 마을교사들은 "교육도시 시흥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생겼다"며 "마을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송진 시흥시 교육자치과장은 "마을교사도 이제 시흥교육의 한 축이 됐다. 시민들의 교육 만족도에서 마을교사의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마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수는 영상으로도 제작됐다. 이로써 더 많은 마을교사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중에 THE SEN(시흥교육방송)에 게시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청년의 삶 전반 정책에 담는다... 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산시는 지난 28일 '제2차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년노동자 실태조사-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용역은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수요 및 청년인구,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지역청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안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계획(2024~2028년)으로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검토 ▲안산시 청년관련 추진사업 진단 ▲제2차 청년정책 비전 및 전략수립 ▲일자리·주거복지·교육·문화 등 분야별 핵심 과제 도출 등과 함께 ▲안산스마트허브 내 청년노동자 실태 및 정책수요, 개선방안 등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검토해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안산의 청년정책 미래 비전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신뢰의 인천 수돗물, 으랏차차'인천하늘수'

상수도사업본부 다양한 소통 방정식으로 인천하늘수 신뢰 구축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젊은 직원들과 함께 "상수도 으랏차차 토크"를 진행했다. (으랏차차 : '힘내자'를 뜻하는 감탄사)

이번 행사는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제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부 및 사업소 젊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조직 상하간, 동료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소통과정 속에서 '혁신과제'도 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으랏차차 토크를 확대하여 테마별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인천의 수돗물, '인천하늘수' 생산이라는 기본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남/기자



전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국내산 둔갑 행위 잡는다

일본 수산물 유통·소매업체 374개소 대상, 100일간 집중 단속

전라남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100일 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각 시군, 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해경, 명예감시원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374개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유통 업체 50개소, 소매 업체 324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193개소를 특별 점검 한 결과 위반사례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남원시, 고향 잘 다녀왔습니다

남원시 다문화가정 9가구 42명 고향 방문



남원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그리운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대상자를 신청받고 최종 선정된 다문화가정 21가구(필리핀 3가구, 일본 3가구, 베트남 5가구, 몽골 1가구, 중국 4가구, 캄보디아 4가구)의 고향나들이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선정된 다문화가정 중 9가구 42명에게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고향 방문을 도왔으며, 나머지 12가구에도 올 12월말 내에 원

하는 기간동안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향을 다녀온 황○○씨는 "그리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경식 시장은 "올해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이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모든 가정에 기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 무척 아쉽다."며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고향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제2회 추경예산 394억원 증액 편성... '자연재해 복구 및 군민생활 안정' 등 중점

전남 함평군이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6,160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766억원보다 394억원(6.84%)이 증가한 6,160억원으로 일반회계 376억원, 특별회계 1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8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비전 실현을 위해

군민과 밀접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산불·수해·폭염 등 자연재해 복구에 중점을 뒀다.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함평읍 중앙로(농협중앙회-국도정보공사) 확포장공사 20억원, 23년산 일반버 출하 장려금 지원 10.5억원, 도로 및 소화천 호우 피해 복구비 8.8억원, 산불피해 항구복구비 6.8억원, 읍·면

재해복구비 9.2억원 등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함평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4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 노동조합과 간담회... 명품 자족도시 협력 다짐

교육·환경·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현안 논의, 주기적인 소통 약속

윤병태 나주시장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노동조합과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위한 동반 협력을 다짐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윤병태 시장과 혁신도시노조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혁신도시노조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FMS, 한전 CSC 등 5개 전력 기관 노동자를 위한 단체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소 노조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가람동도 식당에서 진행됐다.

노조는 윤 시장과 대화를 통해 혁신도시 교육, 교통, 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중에서 혁신도시 학생 과밀화 해소, 교육력 제고를 위한 초·중학교 신설,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해 공용 주차 공간 확보, 나주콜버스 시범 운영 등에 관심을 갖고 상호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윤병태 시장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명

품교육도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혁신 모델 만들고 가족 동반이주를 위한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노동조합과 앞으로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명품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들어 혁신도시 16개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내 국·도립기관 33곳과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각 기관별 업무 특성과 밀접한 17개 연관 부서의 1:1매칭을 통한 부서 책임제를 도입해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혁신도시노동조합과도 주기적인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기관 간 주요 업무, 사업 공유로 상호 기관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순천시 화려한 시작 알려

산업계의 전국체전 5일간 7천여 명 순천시 체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산업계의 전국체전인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화려하게 출발했다.

이번 행사는 5일간 7,000여 명의 전국 우수업체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전국 행사로 대기업에서 우수 중소기업까지 4차산업 신기술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분투하는 전국

273개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인 만큼 각 기업들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행사를 시작하여 수상의 영광, 패배의 격려로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이 정원과 함께 감동적인 축제로 기록될 예정이다.

시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내 거점지역과 교통 요충지에 홍보탑, 배너 등 홍보시설물을 대규모로 설치

해 홍보하고 순천시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요식업, 숙박업체 리스트를 정리하여 찾아오는 업체 관계자들이 순천의 멋, 맛, 즐길 거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손님이 준비를 했다.

행사가 열리는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관심이 쏠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

다. 순천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공연·체험 행사도 잇따라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행사장 내부에 부스를 운영하여 3명의 전담 해설사를 배치해 행사를 안내하고 재미있는 순천 스토리를 전달해 경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을 각종 도심 축제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은 전략적인 개념으로 인문학 지식과 철학적 깊이, 그 시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순천이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로 해답을 제시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은 회색빛 도시에서 맑고 밝은 녹색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회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궁금하다"라며 "남은 기간 역삼송이 국화와 함께 최고의 가을 정원을 만들고자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정원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준/기자



완도군, 공직자·군민 '청렴 완도 만들기' 동참

군민 대상 청렴 교육, 공무원 대상 행동강령·청렴교육 실시

완도군은 지난 25일 생활문화센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과 공무원 대상 행동강령 및 청렴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군민 청렴 교육은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부패 없는 완도를 만들고자 마련됐으며 완도, 군외, 신지면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한국미래지식원 김영모 대표가 강사로 초빙되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청렴'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뉴스나 드라마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로 풀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신우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 처리, 공직자에 대한 군민의 신뢰, 이 두 가지가 상호 긍정적인 관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민께서도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 교육은 공직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우철 군수의 갑질 방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전라남도 김세국 감사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청렴 교육으로 이뤄졌다.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사로 나선

신우철 군수는 행동강령의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부당한 상사의 지시나 대우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져 문제화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완도군을 찾아 청탁 금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하며 감사원 재직 시절 주요 감사 사례를 예로 들어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공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종합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지난 7월에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 실천 서약식'을 추진했다.

아울러 8월 28일부터 5일간 '공감·소통 청렴 주간'으로 운영하여 조직 구성원 간 공감·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패 행위 신고 모의훈련, 청렴 골든벨, 청렴 사진관 등을 추진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양영률/기자



20세대 규모, 구례군 소규모 공영택지 조성사업 추진

44억 원 투입, 용방면 사림리에 소규모 공영택지 20세대 조성

전남 구례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공영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영택지 조성사업은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총 사업비 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4월 착공했으며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는 24,530㎡로 공용 택지 20세대와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산책로 등 귀농 귀촌인을 위한 기반 및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주택부지 면적은 약 150평에서 200평 사이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공영 택지 분양공고를 하여 관심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분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신뢰할 수 있는 공영택지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매력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공영 택지 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인구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전남도, 올해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에 온 힘 '결의'

청렴드림 행사 통해 청렴 의지 확산

전라남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을 위해 28일 '모두에게 청렴드림'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출근하는 공직자들에게 청렴차를 나눠주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취약 분야의 개선을 위해 공직자들과 청렴 의지를 다짐했다.

전남도는 청렴한 도정 운영을 위해 청렴교육 실시,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단장으로 4개 분야 26명으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회의를 개최하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작성, 부패방지 시책 및 부패취약분야를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도 청렴 으뜸 전남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청렴을 실천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진도군, '침찰산 봉수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예고

조선시대 중요 군사·통신시설...오는 10월 중 지정 고시 예정

진도군의 신면 침찰산 정상부에 위치한 '진도 침찰산 봉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5일 진도 침찰산 봉수 유적을 포함, 16개 봉수에 대해 '제5로 직봉'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봉수 유적이란 요새 기능에 중점을 둔 조선시대의 중요 군사·통신시설로서 그 시대의 군사·통신제도를 보여주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 문헌에 기록됐다.

특히 진도 침찰산 봉수는 서해와 남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왜구의 침투 감시에 탁월한 위치에 입지해 있다.

최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은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침찰산 봉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면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쌓은 진도 용장성과 진도 남도진성에 이어 진도군의 세 번째 사적이 된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진도 침찰산 봉수 외에도 여귀산 봉수와 서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간봉(間烽)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봉수 체계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목포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에서 '관광목포'를 알리다

'2023 한국주간' 참가해 관광 자원, 수출용 김 상품 홍보

목포시가 몽골의 수도 '붉은 영웅의 땅' 울란바토르에서 '대한민국 관광거점 도시 목포, 미식관광도시 목포'를 널리 알리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시는 지난 25~27일 울란바토르의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2023 한국주간' 행사에 참가해 몽골 국민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목포의 관광 자원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한국주간은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서 양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관광 성수기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몽골 국악공연, 한국국기원 태권도시범, K-POP 콘서트 등이 펼쳐진 한편 몽골 소재 한국 공공기관과 한국기업 등이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는데 목포시는 대한민국 기초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관광홍보 특별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몽골에서의 K-콘텐츠에 대한 높은 인기와 열망을 고려해 목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실사 홍보사진으로 제작한 포토스팟을 활용 목포의 매력을 알렸으며, 특히 올해 목포시를 방문

한 몽골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 유치 여 행사에 대해 1인당 최대 5~6만원까지 지급하는 파격 인센티브까지 적극 홍보했다.

또 방문자에게는 다양한 홍보물과 기념품, 젊은층이 선호하는 한국 편의점과자류를 제공해 인기를 독차지하여 현장 홍보 열기를 더했다.

아울러 김 관련 식품에 대한 몽골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공략하기 위해 김스민, 김부각 등 간식류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김자반, 김장김, 파래김, 김밥김, 조미김, 김가루 등 김 상품을 비치해 수출 촉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바다와 섬에 대한 동경이 크고,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몽골 국민에게 해양관광도시이자 영화와 드라마 인기 촬영지인 목포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K-푸드로서의 높은 인기를 확인한 김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김 가공업체들의 몽골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어디든 글로벌 관광마케팅에 더욱 집중해서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관광도시 목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등 집중 단속

화순군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지 불법 전

용 또는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점검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을 대상으로 위장·허위 영농 등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히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경영

에 이용되도록 지도하는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강진, 장기체류·가족관광객 적극 유치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오소스테이 개장



강진군이 장기체류 관광객과 가족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5일 1주일 이상의 장기체류 관광객과 가족관광객 유치를 위한 생활관광의 새로운 형태의 숙박공간 오소스테이 개장식을 가졌다.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건물 2동으로 구성된 오소스테이(OSO STAY)는 일과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등과 가족단위의 여행객을 위한 가족동으로 돼 있다.

숙박에 필요한 객실과 휴가중에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워케이션 라운지, 8인 이하 사용가능 소규모 회의실, 별을 볼 수 있는 루프탑, 1주일 체류에 도움을 줄 세탁실과 공용주방 등 단순 숙박 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오소스테이(OSO STAY)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객 체류를 기반으로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시설로 조성됐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각광받고 있는 워케이션과 강진의 대표 생활관광 프로그램인 '강진에서 일주일살기-푸스'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소스테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오소스테이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조성됐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소스테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워케이션, 특화 공간과 가족을 위한 시설로 구분해 운영하며, 지역 식품시설 제휴 공로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주변시설 안내와 할인의 혜택을 제공, 지역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소스테이 이용방법은 오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문의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으로 하면 된다.

추준호/기자



경북도, 제113주년 경술국치일 추념 행사 개최

경술국치일의 뼈아픔과 순국선열의 독립 의지 되새겨



경북도는 29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제113주년 경술국치 추념 행사'를 개최했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당한 국가와 민족의 치욕적 역사로써,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라 한다.

이날 행사는 도내 광복회원들을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이용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 권광택 경북도의원, 보훈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약사보고 △추념사 △기념공연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민족의 국권을 일제에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도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도형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추념사(대독)에서 "경술국치일은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빼앗긴 날로, 국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의 크나큰 희생이 있었다"라며,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 대구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 개최

채용인원 350여 명(현장채용 162, 간접채용 186) 예정

대구광역시에서 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양일간 여성UP엑스포와 연계해 엑스코(북구 소재) 서관(1층)에서 '2023 대구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여성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을 꿈꾸는 여성은 물론 청년여성, 중·장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인기업과의 현장채용 면접 및 간접채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경력단절예방관 ▲창업지원관 ▲부대행사관 ▲홍보관(참여기업 및 여성유망직종)으로 크게 6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이 되며, '기업채용관'에서는 32개 기업이 직접 참여해 인사담당자와 구직 여성 간 1:1 현장면접을 통해 16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50개의 간접면접기업이 참여하는 '취업지원관'에서는 취업상담사가 기업을 사전 방문해 채용정보를 파악한 후 박람회에 방문한 구직 여성들에게 상담을 통해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이력서클리닉, 사진촬영, 문서지원(노트북사용 지원), 여성유망직종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력단절예방관'과 '창업지원관'에서 경력단절예방과 여성창업 전주기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구시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부대행사관'에서는 취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형프로그램(캘리그라피, 네일아트, 소잉체험, 야생화자수)과 컨설팅(프레디저 활용 커리어 설계, 퍼스널컬러 진단, 컬러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직·간접 참가 기업체에 대한 자세한 채용정보는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열린 대구여성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미취업 여성 224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기 바라며, 아울러 구인기업에서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여성 구직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채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 일자리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이성권 경제부시장, "지난해 최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이어 이번 체결로 중앙아시아와 실질적인 교류협력 더욱 확대 추진" 밝혀

부산시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고도(古都)이자 제1의 관광도시 사마르칸트시와 실질 교류 협력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현지시각으로 8월 29일 오전 9시 30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청년센터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파올리나 우마르프 사마르칸트시장이 참석해 직접 협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는 서역과 중국의 실크로드 중간에 위치하며,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수로 지정된 바 있다.

역사와 관광의 도시로 사마르칸트주의 주도이자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이번 협정은 시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아시아 도시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던 중, 지난 2022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제안으로 시작돼 마련됐다.

지난 22일 출정한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을 통해 사마르칸트시를 직접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다.

우호협력도시 협정이 체결되면 양 도시는 앞으로 ▲경제 ▲관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날 사마르칸트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현지시각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사마르칸트시 '힐튼 인 사마르칸트(Hilton Inn Samarkand)'에서 부산경제진흥원주관으로 부산-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해 양 도시의 경제 분야 교류 협력의 첫 물꼬를 틀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사마르칸트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이 양 도시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정 체결로 중앙아시아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양수발전소 영양군이 안성맞춤이다!

영양군 정보화농업인 연합회 회원 40명은 8월 29일 오전 8시에 영양군 법원 사거리에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영양군 정보화농업인회는 유튜브, 브이로그,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사회 정보망을 이용하여 농산물 판매 경로를 확보하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 모인 영양군 농업인 단체이다.

영양군민이 힘을 모아 유치를 희망하는 양수발전소는 국비 사업으로 2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영양군 정보화 농업인들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영양군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참여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양수발전소 사업은 매년 14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영양군 지방재정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영양군 정보화농업인회 장병천회장은 "정보화 농업인들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상제 사무국장도 젊은 정보화 농업인들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 정보화 농업인들이 구축하고 있는 정보망으로 영양농산물 판매로 소득 극대화에 노력해주시고, SNS를 이용한 영양군 양수발전소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재난대응 능력 UP 안전한 지역을 만들자!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청송군은 지난 8월 29일 소노벨정충소에서 11개 기관·단체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관광숙박시설 대형화재 합동 수습"이라는 주제로 재난대응 현장중합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난대응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임무 숙지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범국가적 훈련으로, 올해 청송군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간으로 병행하여 동시에 진행했다.

토론훈련은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윤경희 군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상황판단 회의에 이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주요 임무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그 시각 소노벨정충에서는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군자물방재단, 청송군의용소방대연합회,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청송지부협의회 등 여러 유관기관·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실제상황을 방불케하는 합동훈련을 펼쳤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민·관의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하여 안전한 청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오는 9월 7일, 2025 APEC 경주 유치 희망 포럼 열려

경북도, HICO에서 2025 APEC 경주 유치 희망 포럼 개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이 다음 달 7일 오후 3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이코 3층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화백컨벤션뷰로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경주, 첨단을 타고 실�크로드를 달리다'의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펼쳐진다.

이날 포럼 1부는 먼저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의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의 당위성-세계는 지역주의에서 다자체제로 이행중'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시작된다.

이어 베트남 다낭 외교부 공무원인 Phan Thi Dao의 해외 유치 선진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베트남 다낭은 2017년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력이 있으며, 소규모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선진 사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APEC 정상회의, 왜 경주 시인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의 박정수 APEC 학회 부회장은

중심으로 4개 분야의 전문가가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의 연상국 R2M 대표, 경제 분야의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 관광 MICE 분야의 윤승현 교수 그리고 문화 분야의 다니엘 린데만이 참석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이 끝난 뒤 2부에서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경주의 APEC 유치 희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하면 당일 빠르고 편리하게 입장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HIC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주화백컨벤션뷰로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유치결의를 다지면, 최종적으로 경주가 개최 도시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전국 최초 MR(혼합현실)기반 메타버스 간부회의 시스템 도입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술로 시·공간 극복, 실감나는 회의 가능해져

경북도는 29일 도지사, 실국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MR(Mixed Reality, 혼합현실) 기반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간부회의를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MR 기반 메타버스 회의시스템은 가상공간을 지양하고 현실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한 고실감형 텔레프레즌스 기능을 통한 회의문화 혁신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회의 참석자는 경량 AR(증강현실) 글

라스를 착용하고 모바일 앱에 접속 후 확장 가상세계 속 회의실 좌석에 자신의 아바타로 참석하면 된다.

AR글라스에서 회의자료(PDF)를 공유하면서 발표와 청취를 할 수 있으며 동영상 기능 활용 등 서류 없는 회의가 가능하다.

또 모바일 앱 기반 접속으로 해외 출장 등 어디서든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가상공간에서도 협업할 수 있으며 '함께 있다'라는 실감도가 높아 향후

기존 영상회의보다 사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행정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버스 회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회의 참석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라며, "지역의 사회·경제 전 영역에 확장 가상세계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한울원자력본부', 노사합동 봉사대·지역주민 합동 환경정화 봉사활동 시행

한수원 올진 시니어봉사단 및 지역주민과 함께 북면 해안가 일대 환경정화 활동

손봉순 대외협력처장, "한울본부는 참가자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실천 감사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지난 25일, 지역주민과 함께 올진군 북면 해안가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울본부 노사합동 봉사대, 북면발전협의회, 올진에 정착한 한수원 퇴직자들로 구성된 시니어봉사단, 북면여성자원봉사회 등 약 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북면 흥부시장에서 출발해 석호항 근처 백사장 약 1.5km의 해안길을 걸으며 해변에 흩어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참가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쓰레기 약 1톤을 수거했다. 손봉순 대외협력처장은 "참가자들이

몸소 보여준 아름다운 실천에 감사드리며,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봉사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판촉전 '가치영주' 개최

"가치가 담긴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소개합니다"

영주시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시 상생상회에서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판촉전인 '가치영주'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의 우수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담긴 가치를 서울 소비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29일과 30일 양일간 상생상회 매장 외부 판매장에서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지역 농산물 홍보판촉전이 진행되며, 29일에는 지하 1층 공간에서 영주시 사회적기업인 시드컴퍼니 언니네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원데이클래스가 두 차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영주시 관광지와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영주시를 알리고,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가치가 담긴 좋은 제품들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여름 끝자락... 고즈넉한 고택에서 몸도 마음도 푹~



처서가 지나고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다. 비가 오고 무더웠던 여름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것만 같다.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했다면 여유롭고 한적한 고택에서 늦여름의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봉화군에는 옛 아름다운 정서를 고이 간직한 고택들이 모여 있는 전통문화마을이 있다. 과거에 마을이 하상(河上)보다 낮아 바다였다는 뜻을 가진 바래미마을이다.

바래미마을은 봉화읍에서 영주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해저리에 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옛 정취가 지금까지 간직되어 내려온 작은 마을로 독립운동 훈장을 받은 유공자만 14명이나 배출한 유서 깊은 마을이기도 하다.

병풍을 두른 듯한 마을에는 수십여 채의 한옥이 울기종기 모여 있어 고즈넉한 운치를 느낄 수 있다. 고택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달라 취향껏 고르는 재미가 있으며, 하룻밤을 머물며 다양한 전통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바래미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만회고택은 영주·봉화 지역의 첫 국가민속문화재이자 바래미마을 내에서는 유일한 국가 지정 문화재이다.

만회고택의 안채는 1690년에 준공된 33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며,

사랑채는 200년이 된 국가문화재로 문화유산부문 최고등급인 관광공사지정 명품고택으로 지정됐다.

만회고택은 최소 1인에서 최대 4인까지 이용가능한 객실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방 내부에 화장실이 있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만회고택에는 정자와 방이 함께 있는 명월루가 있는데 그 시절에는 보기 힘든 건축양식으로 풍경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다. 여름에는 태백산의 바람이 루를 감싸고 돌아 자연이 주는 바람의 진수를 느낄 수 있으며, 밤이면 이름에 걸맞게 밝은 달을 품고 있어 이곳에 앉아 있으면 자연에 둘러싸인 봉화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

또한 삼에실에는 다락방을 개조해 만든 전용 공간이 있는데 계절별로 소품들을 바꿔 꾸며 놓는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으로 사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에 좋다.

이곳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 혹은 커플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가득하다. 부채, 보석함 등을 채색해 보는 민화체험과 컵메트 등을 만들어 보는 직조체험, 이밖에도 약세사리를 만드는 칠보체험 등을 해볼 수 있으며 체험들은 일정 인원수 이상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도향고택은 11대째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조

화롭게 어우러진 명품 고택이다. 고택의 방은 전통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현대식이라 불편함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다.

객실은 한 칸 크기의 아담한 문간방을 비롯해 최대 4명까지 이용가능한 다양한 객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간단한 과일로 구성된 아침식사가 제공된다.

특히 별도 마련된 독채는 최대 8명까지 머물 수 있는 신축 한옥으로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용호정이라는 신축 한옥에서는 연꽃 연못을 바라볼 수 있어 운치 있는 하루를 만들어 준다.

고택정원에는 연못과 다양한 꽃들이 있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토향고택 이곳저곳을 산책하며 맑은 공기와 함께 온전한 휴식을 누리면서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하다.

도향고택 앞 정원에는 연꽃 연못과 각종 야생화와 나무, 산책길, 도자기 장작가마, 바비큐장 등이 있으며 마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생화 언덕과 함께 전통그네와 투호던지기, 활쏘기를 할 수 있는 민속놀이터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도자기 체험, 서예 체험은 도향고택의 독특하고 특별한 자랑으로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차분한 휴가를 즐기려는 가족 나들이객들에게 인기다 많다.

소강고택은 100여 년이 넘는 말 그대로 전통한옥집이다. 조선조 후기의 전형적인 양반가의 형태로 문살 하나까지 전부 춘양목으로 지어졌다. 중후한 멋이 깃든 만큼 조선 후기의 양반가의 옛 기운을 느껴볼 수 있다.

소강고택의 객실은 어사방부터 사랑방까지 총 6개이며 많은 객실 중 도량방은 고택에서 유일한 황토방으로 방문을 열면 사랑마당과 큰 정원, 담 넘어 나지막한 산이 보이는 정겨운 풍경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소강고택 맞은편에 위치한 남호고택은 응향산 줄기의 낮은 야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양질의 고급 목재를 사용해 100년이 넘는 고택인데도 불구하고 변형되거나 보수한 흔적이 많지 않다.

대청마루와 사랑채의 문을 올리면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고 마당까지 넓어 워크숍 같은 행사 장소로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별채 영규헌은 옛날 도서관 용도로 지은 건물로 독채로 되어있다. 방 2개,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6인까지 지낼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조용하게 하룻밤을 보내기 좋다.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민속놀이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한복 입고 사진찍기 체험을 비롯해 사전 예약을 하면 전통혼례 체험도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경북기업,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시회 2,496만 달러 수출상담성과

북미 최대 소비재전시회 6개 사 참가, 해외 진출 가능성 확인



경북도는 '2023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전시회(ASD Market Week)'에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식품·소비재기업 6개사가 참가해 총 2,496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2만 3천 달러의 현장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는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북미 최대 규모의 소비재 전시회로 국내기업 67개사를 비롯해 전 세계 30개국에서 1,800여 개사가 참가했고 세븐일레븐, 샘스 클럽, 루이스 드릭 등 북미 유력 유통회사를 포함해 약 3만

명이 전시회를 참관했다. 올해 경북 공동관은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추진했으며, 리프트일(경산, 세라믹 생활용품), 산과보름(영천, 수제초콜릿), 셀타디움(성주, 영양제 및 콤팩트), 알알이푸드(성주, 간편식 미숫가루), 어니스트파머(영천, 석류 콜라겐 및 현미칩), 코리아티엔티(경산, 극세사 클리너 전문프린팅) 등은 4일의 전시 기간 총 27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한 인증(GMP)과 해협(HACCP) 인증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콤팩트 분말 등을 생산하는 셀타디움은 현지 구매자들에게 제조 능력을 인정받아 주문자 위탁 생산(OEM) 관련 문의를 많이 받았으며, 146만 달러의 수출 상담 및 1만 7천 달러의 현장 계약에 성공했다. 육실 및 주방용 세라믹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리프트일은 항공 기능을 앞세워 약 2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 및 1천 달러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고, 현장 해외 구매자 중에는 자사의 항공 실험 절차 진행 후 계약을 추진하길 희망하는 곳도 있었다. 식품용 석류 콜라겐과 현미칩을 내세운 어니스트파머는 283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1천 달러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구매상들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인증까지 획득한다면 해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역실무와 외국어 능력을 갖춘 지역대학생 12명이 도내 기업의 전시 상담장 운영을 지원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경북도와 무역협회 대경본부가 2013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지역 무역 인재 양성사업인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의 제11기 교육과정에서 최우수 수료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다. 경북도는 이번 전시회에 해외무역 현장 탐방 차원에서 학생들을 파견했고 학생들은 전시 상담장 준비, 통역, 현지 구매자 응대 등을 통해 참가기업의 숨은 일꾼으로 활약하며 해외수출 실무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달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케이(K)-열풍에 힘입어 현지 구매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지속적인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꾸준히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에 대한 현지 반응을 기반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시민 우대 혜택 및 지역 청년 정착 지원 확대

42개 부서 108건의 인구 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구미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소장 및 40여 개 사업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인구정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앞으로의 인구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시민 우대(지원) 혜택 확대 △지역 청년 장학금 및 주거 지원 등 청년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방안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신규 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호 구미시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인구와 직결되기에 요

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외국인 유입 정책 등 인구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빈집, 관광 상품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책 발굴에 전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최우선 목표를 인구 회복에 두고 2023년 1월 인구 담당 부서를 신설, 인구정책 지휘소(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소 갖기 시민운동,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등 시 전체가 협심한 결과, 전년 대비 인구 감소율이 절반 가까이 완화되는 등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며 인구 문제 극복 분위기가 조성돼 앞장서고 있다. 김동현/기자



김동현/기자

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12.5.까지 시내 수입수산물 취급업소(1,691개소) 대상,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각 시·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해경 관계자·명예감시원 등 60여명

부산시는 오는 12월 5일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소 총 1,691곳(수입 36, 유통 247, 소매 1,408)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 고조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986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였고,

원산지 미표시 7건과 거짓표시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부산시 각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들과 명예감시원(20) 등 60여 명이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는 두-트랙(Two-track) 방식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 수입물량·주요수입국·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

중점 점검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छ이(명게) 등 3종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거짓)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물국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금지 돼있으나, 수산물 업체들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우리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발전 지원사업 등을 연말까지 계속 진행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2대 추가하고, 수입·생산·유통단계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제와 유통이력제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을 더욱 꼼꼼하고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대구 북구, 청년 e스포츠 대회 개최

대구 북구청은 2023년 9월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2023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와 함께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청년 e스포츠 대회는 e스포츠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야외에서 축제와 더불어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대회의 종목은 LOL(League of Legends)이고 5인 1조로 구성된 16개 아마추어 참가팀을 모집했고 9월 2일 경북대 근처 NU PC방에서 토너먼트 예선전을 치뤄 1~4위까지 선

정한 후 9월 15일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행사장에서 17시부터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결선 당일에는 사회자 및 대회 심판을 모시고 e스포츠 대회 규정에 맞게 대회를 진행하고, 85만 유튜버 조충현이 캐스터로서 결선 중계를 하며 관중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사전관람 신청은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사전관람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동현/기자



'영양고추유통공사', 코로나19 극복하고 수출효자 기업으로 우뚝 서

2023년산 햅고추가루 13톤 선적, 미국에 올해 첫 수출해 오도창 영양군수, "해외수출은 영양고추의 K-매운맛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힘찬 도약, 앞으로도 우수 농특산물 수출확대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의사" 밝혀

세계 최고의 명품고추를 생산하는 영양고추유통공사 '빛깔찬 고춧가루'가 2023년산 햅고추가루 13톤을 미국에 첫 수출했다. 영양고추의 미국수출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다. 이날 선적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김민혁 울타리 USA 대표,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이정근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구경북지원단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외 마케팅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했다. 영양고추산업특구 내에 위치하는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영양고추의 우수성

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코로나 19이후 수입산 고추 저가공세에도 고추 단일품목으로 매년 수출증가 추세를 지속해 왔고, 향후 수출 100만불 금자탑을 달성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양군 수출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영양고추유통공사 최현동 사장은 "영양 '빛깔찬고추가루'의 미국 L A 시장 진출은 대한민국 K-매운맛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앞으로도 미국 이외 유럽, 아시아 권역으로 뻗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수출선도 기업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울타리USA 대표 김민혁은 "영양 '빛깔찬'브랜드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현지 온오프라인 시장을 개척하고,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명품 영양고추 홍보 및 공급확대를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3년산 '빛깔찬고추가루' 첫 수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과 울타리USA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해외수출은 영양고추의 K-매운맛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힘찬 도약이며, 앞으로도 우수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인천시설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과 안전관리 교차점검

MOU 협업기관간 시민이용시설 교차점검 실시

인천시설공단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라 지난 25일과 28일 이틀간 시민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교차점검은 양 공단이 수탁·관리하는 유사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점검반은 각 기관의 재난안전 담당부서와 시설을 담당부서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25일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8일에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재해유형과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시설물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등 시민이용시설 이용자 및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 내 안전사고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했다. 양 기관은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추가 의견을 교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우수사례와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필 이사장은 "이번 교차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시각을 다각화하고 재난 안전분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서울시,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등 공사장 긴급점검 결과...철근배근 및 콘크리트강도 모두 문제 없어

무량판구조 등 27개소 공사장 점검 결과,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서울시는 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인천검단 사고 및 LH 철근누락 사태 등과 관련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7.10부터 한 달간 긴급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10개소(민간8, SH2) 뿐 아니라 무량판구조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13개소,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현장 4개소 등 27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긴급점검 결과 27개소 점검대상 공사장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내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의 공사현장의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민간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이번 긴급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그 밖에 품질 및 안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지시도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 행정처분 등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으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한 건설공사全过程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재차 제안하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산업을 뿌리부터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점검 결과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강도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 차원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용인특례시, 노후된 배수지 시설 개선 공사 11월까지 진행

구성배수지와 용인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진행...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해 8억원 투입

용인특례시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된 구성배수지와 용인배수지 내부의 방수와 방식(부식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비 8억원이 투입된 배수지 내부 시설 공사 공정율은 42% 수준이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11월이다.

남은 배수지 벽면과 기둥, 바닥에는 바탕면처리(바닥이나 벽면을 긁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후 방수 작업을, 유입·유출밸브에는 녹을 방지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완료 후에는 3일 동안 침수와 고압세척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배수지의 시설 개선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겠다"며 "용인특례시 지역 내 배수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 1993년 각각 가동을 시작한 구성배수지와 용인배수지는 기흥구 구성동과 언남동, 동백지구, 처인구 삼가동 일대 시민들에게 상수도 공급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산림청, 주택·인구 밀집지 수목 피해조사 및 안전점검 실행

대형화·노령화 수목을 대상으로 선제적 관리

산림청은 해마다 강력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말까지 주택·인구 밀집지 대형 수목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산림청·수목 안전진단 전문가·자치체 담당자가 참여하며, 8월 29일 대구광역시로 시작으로 9월 말까지 7개 특·광역시 4천 그루를 우선 대상으로 육안 검사와 비파괴 정밀 진단 방식으로 실시한다.

전국에는 식재 후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화 수목이 약 100만 그루 있으며, 지난 4년간 비바람 등에 쓰러지거나 부러진 수목이 2만 그루로 매년 평균 5천 그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일상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다중이용시설 주변 대형화·노령화된 수목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하며,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심지의 숲이 많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숲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국체전 주경기장 점검

28일 취임한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제104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목포 종합경기장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명창환 부지사는 목포종합경기장의 주요시설인 종합상황실, VIP환담장과 개·폐회식 연출 공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폐회식,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회식과 양 체전의 육상경기가 진행될 주경기장이다. 또한 2024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 2025년 전국생활체육축전의 주경기장이 될 예정이다.

현재 목포종합경기장은 주요 공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전기·기계설비 시운전, 외부 조경공사, 준공청소 등 전담을 방문할 반가운 손님맞이를 위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더욱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전남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안겨드리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GM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강원도 가을밤, 가족과 함께 설레는 별자리 여행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을철 별자리 관찰캠프』 행사를 9월 21일, 22일(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9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철 별자리 강의를 포함해 별자리를 알 수 있는 별자리 투영기 만들기 체험, 맑고 깨끗한 밤하늘 속 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 관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무더위로 지친 몸을 선선한 가을 밤 속에서 휴식하면서 자연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당일형 프로그램으로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시 유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지기선 소장은 “가을철 별자리 관찰 가족 캠프는 깨끗한 자연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체형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건설 현장 방문

지역 건설업체 상생 방안 논의

아산시 건설정책과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지속 방문 중이다.

유경재 시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은 지난 28일 다른 지역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 사무소(음봉면 월랑리 536 일원, 음봉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관내 업체와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저재가

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관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 확대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지역 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등 협조를 요청했다.

유경재 과장은 “아산시 내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관내 건설업체·장비·인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충남도, 탄소중립 핵심 '미래 그린수소 전환' 첫 걸음

도-보령시-한국중부발전,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선정...국비 54억 확보



충남도가 미래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보령시, 한국중부발전과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필요한 국비 54억 3000만원 등 총 12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전해 수소생산기지는 미래의 핵심자원인 청정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주요시설로, 수소를 물로 전기분해하는 방식을 통해 1일 1톤의 수소를 생산한다.

생산된 수소는 우선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공급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보령 시내버스 운영차고지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충전소(2026년 준공, 900kg/일 소비)에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 생산 확대를 통해 보령시의 산업단지, 주거용 수요에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한

다. 수소생산기지는 보령시 오천면 신보령 발전본부 내 4958m²(약 1500평)에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수소도시로서의 공급체계(밸류체인) 구축, 수소기업을 육성기반 및 생태계 조성, 수소기반 그린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인구 10만명이 붕괴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침체되고 있는 보령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전환의 첫 걸음이 될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수소산업의 기반을 지속 강화해 수소 에너지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운탄고도1330 태백 트레일 러닝' 개최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9월 2일 '운탄고도 1330' 6길을 포함한 태백산 및 함백산 일대에서 '운탄고도1330 태백 트레일 러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트레일은 태백호텔 일원에서 시작하여 태백산 천제단을 지나 만항재와 지리리골을 넘어 뒤원정 회귀하는 약 30km의 러닝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천히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13km 걷기 코스도 마련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회 중 태백체육공원의 시원한 강도에서 열을 식힐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러닝 시작점에서는 각종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플라마켓이 개최되며, 9월 1일부터 3일까지 태백 운탄고도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관광을 즐기고 관련 부스에서 영수증을 제

시하면 강원상품권으로 일정 부분 환급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운탄고도1330'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걸쳐 조성한 길로, 걷기를 즐기는 산악레포츠(레저+스포츠)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폐광지역 대표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6길은 걷기 좋은 자작나무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고원관광도시 태백에서 즐기는 트레일 러닝을 통해 태백 산악자원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태백시가 대한민국의 트레일 러닝의 1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 중앙투자심사 통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 및 열악한 구내식당 이전 청신호

충북도는 후생복지관 건립사업의 첫걸음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지난 8월 25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후생복지관 건립은 도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노후하고 협소한 구내식당 등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도민 편의성 제고와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충북도의 사업이다.

현재, 도청사 내 주차대수는 총 377면으로 본청 근무자(약 1,400여명)와 일일 민원인 방문객 등을 감안하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1970년대에 건물 지하에 지어져 환기가 되지 않는 등 시설이 노후하고 현재까지 식당 환경개선 없이 사용하고 있어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본 사업은 신관 뒤편의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3,961m² 규모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350대 주차 가능한 주차시설과 지상 5층, 6층은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육상시설은 하늘정원을 만들어 신관 및 동관 건물과 연계한 녹색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올해 하반기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5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47억원이 투입된다.

충북도 안남호 회계과장은 “후생복지관 건물이 완공되면 고질적인 청사내 주차난해소와 복지환경 개선으로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본 사업을 통한 지역업체 공사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종교계와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원주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 대표, 원주시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25일 3층 중회의실에서 원주시-종교계가 함께하는 '생명존중 '고독사 없는 원주 만들기'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훈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출중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위기 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

다. 이 자리에는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 3개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주시자살예방센터 등 5개 기관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생명존중 고독사 예방 협의체 구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등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생명존중 고독사 예방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원주

시와 3개 종단 대표가 모여 공동선언문 발표 및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훈 부시장은 “생명존중 고독사 없는 원주 만들기 사업에 종교계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운탄고도1330 태백어셈블트레일

30k/13k

2023.9.2 (토)

태백 소원지 오토캠핑장 (태백시 태백산로 4767)

운탄고도1330 백두대간을 마주하다!

코스: 태백산, 함백산, 백두대산, 운탄고도 6길 30km 13km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GWTB 강원관광재단 동부지방산림청

'채식하고, 계단타고' 건강도시 금천 행동개시

9월 5일 건강도시 행동 개시일 선포

금천구는 9월 5일을 '건강도시 행동 개시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의 103개 회원 도시와 함께 공동행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채식하고 계단 타고 팔팔하게!'라는 구호에 맞는 ▲ 구내식당에서 채식 식사하기 ▲ 출퇴근길 계단 이용하기 두 가지다.

금천구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를 공동행동 실천 기간으로 정했다. 전 직원에게 2주간 공동행동을 실천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많은 직원이 공동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 8주간 근무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 점심시간에 운영하는 스트레칭 건강교실(10월 중 3회)

▲ 출석왕, 체지방 감소왕, 근력왕 시상 등을 운영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채식과 계단 이용처럼 일상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103개 회원 도시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노력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배우GO(고) 어울리GO(고)! 평생학습 평생행복!' 관악구, 2023년 관악평생학습축제 개최

9월 2일, 평생학습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는 관악구의 대표적인 교육 축제 개최

평생학습의 감동이 있는 곳, 서울시 최초 평생학습도시 관악구가 오는 9월 2일 관악구청 광장 일대에서 '2023년 관악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다.

'2023. 관악 평생학습 축제'는 '배우GO(고) 어울리GO(고)! 평생학습 평생행복!'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성취감, 평생학습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소통하며 화합하는 행사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 캠퍼스, 동아리, 성인문해, 관악시민대학원 총동문회 등 관악구 평생학습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축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제7회를 맞는 '관악 평생학습 축제'는 9월 2일 오전 11시 개막행사와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성인문해 한마당 ▲인문학 콘서트 ▲공연 ▲체험 ▲전시 등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성인문해 한마당'은 어르신 백일장 대회와 성인문해 작품 전시회를 통해 학습자들이 갈고닦은 문해교육의 성과

를 보여주고 배움을 통해 느꼈던 즐거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인문학 콘서트'는 "배우고! 어울리고! 한국의 맛!"이란 주제로 1부에서는 금관타악양상물 '루튼'의 음악과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다. 2부에서는 배일동 명창 팀의 '글머리로 피어내는 우리 소리'라는 주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등 37개의 단체가 준비한 공연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채워져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축제장 방문객을 위한 버블쇼, 거리 마술, 독립출판물 전시와 판매 등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향기로 담아낸 성북의 여름... 성북 청년 뷰티 아카데미, K-뷰티 조향 분야 청년인재 배출

성북구,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향사 전문과정 운영

서울 성북구와 성신여자대학교가 협력하여 K-뷰티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성북 청년 뷰티 아카데미 조향사반'의 종강식을 지난 26일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정보관에서 개최했다.

'성북 청년 뷰티 아카데미 조향사반'은 조향분야에 관심 있는 성북구 청년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7주간 진행한 교육이다. 수강생들은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에서 조향 관련 이론 교육과 향 제품 만들기 실습 교육과정을 이

수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블루오션 분야로 급성장하는 조향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함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관능검사 ▲후각 훈련 ▲제품 기획 ▲제품 개발 및 제작 등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조향 전문가를 양성했다.

이날 종강식에서는 성북구를 주제로 한 맞춤형 향수, 향초, 디퓨저를 수료생들이 직접 제작하여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성북 청년 뷰티아카데미 조향사반에 참여한 김

다른 교육생은 "조별과제를 통해 개발한 브랜드 'X'에는 성북의 아침과 저녁이 담겨있다. 성북동 팔각정의 상쾌한 아침햇살처럼 밝고 통통 튀는 느낌의 향과 성북천 저녁 산책을 할 기차게 해줄 부드러운 향이 무게감 있는 향을 컨셉으로 실제 제품 등을 개발해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와 성신여자대학교가 협력하여 성북의 청년에게 조향 분야에 대한 양질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어 기쁘다. 청년들이 이번 교육을 밀거

를 삼아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것 기대한다."라며 "성북구는 앞으로도 캠퍼스타운, 도전속, 취·창업 아카데미, 청년실험공간 공업사 등 다양한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이뤄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라며 격려를 전했다.

성북 청년 뷰티 아카데미 조향사반은 뷰티 교육과정과 별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생의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성원/기자



어머니 품장흥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경북교육청,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신청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신설 학교인 (가칭)효자중을 비롯해 7건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40개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여 개 사업을 공모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재정자립도, 늘봄, 방과후학교 연계 여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가칭)효자중(포항), 울빛유치원(김천), 구미초(구미), 도송중(구미), (구)하양초 화성분교(경산), 영양초(영양), 울릉 학생체육관(울릉) 7건의

공모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공모 결과는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영양군, 경산시와 학교복합시설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공모 선정 이후에도 다른 지역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지속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중식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경북 도내 각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칠곡군,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 지도자 연합교육 실시

칠곡군은 지난 24일 칠곡군아동청소년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칠곡군드림스타트, 칠곡군가족센터,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칠곡교육지원청Wee센터소속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 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우울, 불안, 트라우마, 중독 등 다양한 정서조절장애를 가진 이들을 돕는데 효율적인 치료접근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DBT(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청소년 자살, 자해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칠곡군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지금처럼 아낌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함께 일구어 나가자"며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칠곡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1년 7월부터 꾸준히 지역사회 청소년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송광삼/기자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에 박차!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29일 삼국유사군위 도서관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위생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1회(총 3회)에 걸쳐 진행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교육센터의 강사를 초빙해 1회차(6월 27일)는 △식중독예방관리 △식품위생법 △집단지급식 위생관

리, 2회차(7월 26일)는 △조리식품 위생관리 △기구 등 살균소독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3회차 연수는 △위해요소중심 관리기준 작성 및 관리 △현장교차 오염관리 △식품의 이물질 관리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박종진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더욱 고취하

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북교육청, IB 프로그램, 교육감에게 묻는다

전라북도교육청이 IB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현장 교사의 이해를 돕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초·중등 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교육감과 함께하는 IB 관심 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IB 프로그램의 저변 확대를 위해 현장 교사의 이해를 돕고, IB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담회는 'IB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 '2023 전북미래학교(IB 준비학교)'교사, '2024 전북미래학교(IB 프로그램)'교사 등 초·중등 교사 50명과 서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전북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답변과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운영했다.

간담회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미래교육과의 IB 프로그램 추진계획 안내 △IB 학교 운

영 방향 안내 △참석 교사 협의회 등으로 이루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IB 프로그램 연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며 IB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는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현장 교사의 궁금증을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며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적극적인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전북 미래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부산교육청,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 오후 4시 30분 시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초·중등 교원 정년퇴직 183명, 명예퇴직 431명, 기타 퇴직 2명 등 616명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수식에는 수상자 616명 중 포상 전수 희망자 10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퇴직하는 교원들은 교육자 재직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포상을 받는다.

수상 내역은 황조근정훈장 69명, 홍조근정훈장 78명, 녹조근정훈장 159명, 옥조근정훈장 235명, 근정포장 61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6명 등 616명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힘써주시어

러분의 명예로운 포상을 축하드린다"며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 상 균

충북도 미호강유역공동체 상생협약체결, 통합물관리 마중물

충북도, 금강유역환경청 등 12개 기관·단체 상생협약 체결



충북도는 지난 25일 미호강의 가치 있는 유역환경 조성과 원활한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추진을 위해 12개 기관·단체가 유역공동체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미호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23.8.)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

례'를 제정('22.8.)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북도, 금강유역환경청, 충북교육청,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경제단체협의회,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충북축산단체협의회, 미호강유역협의회 등 12개 기관·단체가 구성원별 책임있는 역할과 협력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호강 유역환경 보전 공동 대응,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위한 구성원별 역할 이행, 미호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상호 노력, 오염원 발생 저감을 위한 모두의 참여와 실천 등이 다.

미호강 유역공동체는 그동안의 하천관리의 한계를 넘어 수질·수량·수생태계 등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민·관·산·학으로 구성됐다.

공동체는 충북도는 통합물관리 총괄, 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통합물관리 지원, 청주시 등 5개 시·군은 각종 사업 실행, 경제·농업인·축산단체는 오염원의

저감과 적정처리, 미호강유역협의회는 학술·기술적 일상관리를 하며 충북교육청은 생활실천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재양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유역환경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상생과 협력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통합형 하천 유역관리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환경관리의 참여형 협력체계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북도는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생·통합·조화에 방해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의 보완은 물론, 유역공동체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합물관리 통한 충북의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충북의 과감한 도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제2청사 개청 후, 첫 성과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선정, 국비확보 쾌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128.4억 원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제2청사 개청 이후 영동권 남부권의 핵심 산업인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첫 번째 공모 사업에서 128.4억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3년간 총 128.4억(국비 54.3, 도비 3, 시비, 3 민자 68.1)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해시 구호동 북평산업단지 일원에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발전전력을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활용 그린수소(1톤/일)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은 동서발전(주)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수소생산기지 운영 등 사업총괄을 담당하고, 대우건설에서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출하설비를 구축하며, 제아이엔지에서는 수소생산기지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는 인허가 및 수소 활용처 발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 설비는 높

은 투자비용과 전력요금 상승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비 지원과 수전해 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한국동서발전의 태양광 발전소 잉여전력을 현물투자 형태로 연계·활용하여 경제성을 확보 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소 공급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개질수소 생산시설 대비 수소공급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26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 시설이 준공되면 도내 속초, 삼척, 평창에 이어 네 번째로 구축되는 수소생산시설이 된다. 앞으로 도내 수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 청정수소 생산시설 확보로 수소공급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소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곽일규 미래산업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확충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청정수소생산 거점 기반을 선점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수소생산기지 구축 설계 배치(안)

- 1 수소법, 환경법, 건축법 등 반영된 설계 배치
- 2 추가 사업확장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유공간 확보
- 3 관연 인허가 원료 및 산업공단 부지 인프라 활용

삼각격자 구조 자성 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상태 발견

양자컴퓨터 등 양자정보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 기대(네이처 피직스 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박제근 교수 연구팀과 이화여자대학교 김성진 교수 연구팀이 삼각격자 구조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새로운 양자상태 발견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 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8월 29일(현지시간 8월28일 16시, GMT) 게재됐다.

키타에프 모델은 벌집 구조를 가지는 물질에서 나타나는 양자 현상으로, 오류가 없는 양자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양자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벌집 구조 물질을 이용하여 키타에프 모델을 구현하는 데에 그쳤다.

벌집 구조가 아닌 삼각격자 구조를 가진 물질이 양자상태를 가질 경우 다양한 양자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실제 물질에서 구현된 적은 없었다. 연구팀은 자성 물질에 대해 연구하

던 중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물질 니켈(원소기호: Ni)을 코발트(원소기호: Co)로 치환할 경우, 키타에프 모델이 구현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연구팀이 사용한 아이오딘화 코발트(CoI2)는 약 40년 전에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수분에 매우 취약해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자성물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이 물질을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했다.

연구팀이 이론적으로 밝혀낸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일본 J-PARC 중성자 시설을 이용하여 비탄성 중성자 산란실험과 스피라 측정 실험을 실시했고, 실험결과를 미국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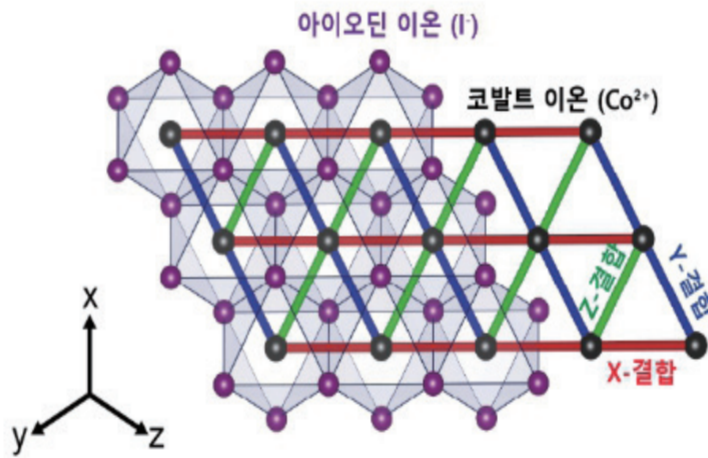
이는 2차원 삼각격자에서 키타에프 모델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결과이며, 한·미·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양자물질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연구팀의 연구성과는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키타에프 모델을 2차원 자성 반데르발스 삼각격자 물질에서 구현함으로써 응집물질물리 및 양자 정보 분야에서 향후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박제근 교수는 "2차원 물질에서 양자 얽힘이 있는 양자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연구진이 개척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한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 분야에서 양자 얽힘이 중요한 양자상태를 발견하여 또다시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서 이 분야를 주도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 #육지안익성 #뽕뽕다리 #트레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물문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관동도시 Clean 예천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GAS KOREA GAS CORPORATION